

기부로 나눌 가치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



2022년 지원금액

7,334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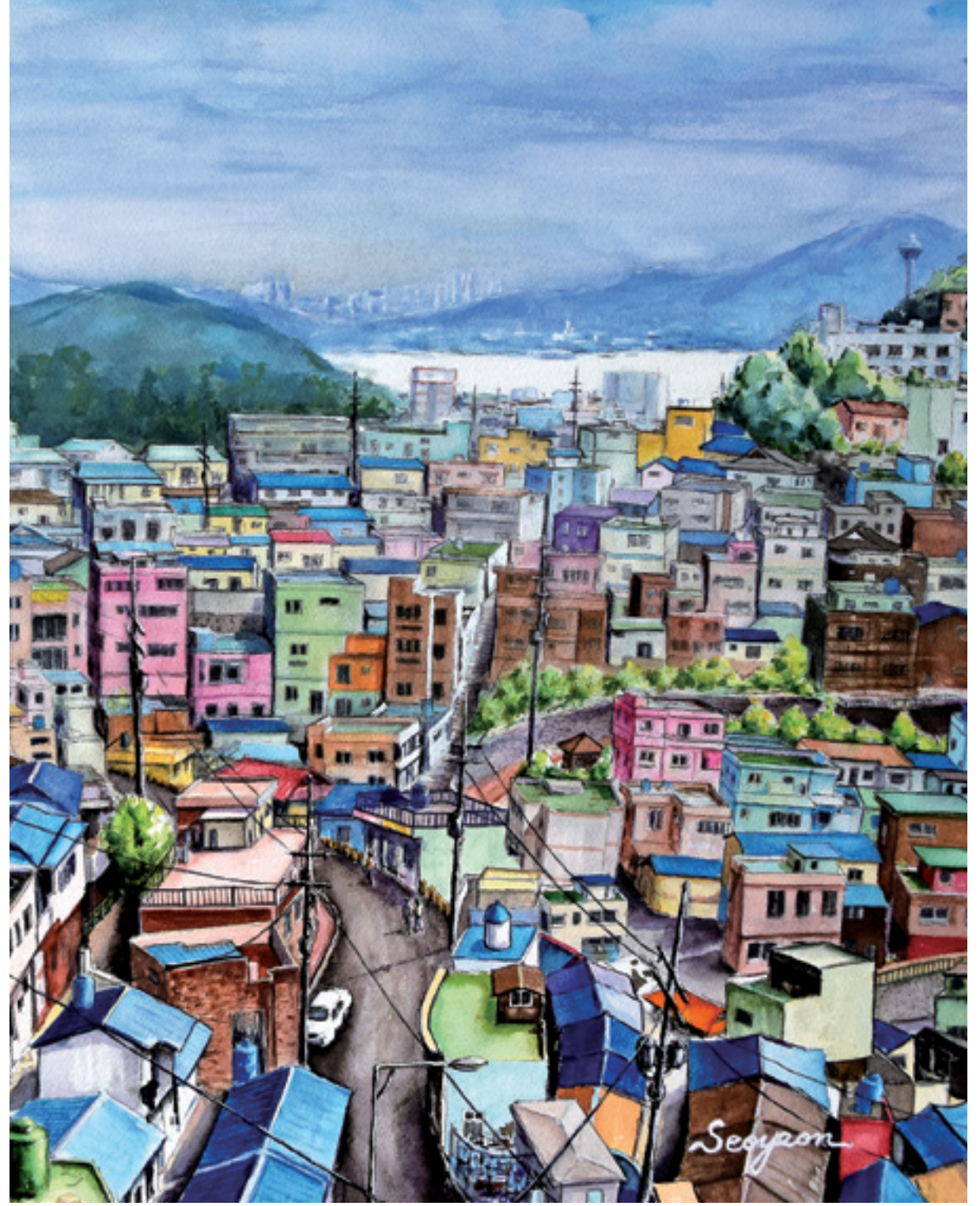
2022년 모금금액 **7,925억** 자세히 보기

사랑의열매는 기부금의 94%를
우리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지원대상	1,578 954 469 343	1,852 2,035 103
사업분야	3,857 915 735 528 285 659 210 145	

[해당 지원내역은 2022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록입니다. 지난해 7,334억 원으로 전국 약 3만 개의 협력 기관과 함께 40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양서면 '감천문화마을 풍경'

사랑의열매

2023 11



사랑의열매 웹진바로가기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나의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

나에게 플러스되는 나눔 플랫폼, 사랑의열매

나눔 플랫폼



소프넷 독자 체험 후기

제로 웨이스트 제품 직접 사용해봤어요!

● 포장부터 꼼꼼해서 놀랐습니다. 열매를 물에 담고 거품 내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세정력은 정말 탁월하더군요! 기름기 있는 프라이팬을 닦는데 금방 뽀뽀뽀 닦이더라고요. 친환경 천연 세정제라 하니 잔여물이 그릇에 남아도 안심이고, 피부에도 좋을 것 같아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해볼 생각입니다.
- 서울시 중구 이주영



● 지난 호 기사를 읽고, 저는 주로 세탁 세제로 사용해봤습니다. 환절기면 몸이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있어서 시판 세제는 독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소프넷 열매는 정말 순하더군요. 세정력도 만족스러웠고, 정전기도 나지 않아 일석이조였어요. 불편하면 계속 사용하기 힘들었을 텐데, 소프넷 열매를 주머니에 넣고 그냥 세탁기를 작동하면 돼 너무 편했습니다. 세탁이 다 되면 주머니만 빼서 통풍이 잘되는 곳에 걸어두고 건조한 후에 또 쓰면 되고요. 특히 세탁물이 부드러워지는 면에서 최고였어요. 저는 세탁 세제로 계속 사용할 생각입니다.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지은

고체 치약과 대나무 칫솔을 보내드립니다

- 1 매월 20일까지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로 제로 웨이스트 제품 체험을 신청한다.
- 2 메일을 보낼 때 이름과 연락처, 받을 주소를 적는다. (총 3명 선정)
- 3 일주일 동안 제품을 사용한 후 간단한 후기를 적어 인증 사진과 함께 사랑의열매에 이메일로 보낸다. (후기는 다음 달 '그린 열매 플러스'에 게재할 예정)



04 표지 이야기

성실함으로 예술적 재능
꽃피우는 양서연 작가

06 나눔 여행

화려한 여운을 즐기는
가을꽃 명소

10 매슬랭

맛나당갈국수 곽재현 대표

14 그린 열매

환경 지킴이로 나선
우리 동네 우산 수리 서비스

16 모두의 나눔

지친 마음까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22 희망으로 채우는 세상

기증자 유가족 심리 치료를 위한
'생명의소리합창단' 지원 사업

26 내 인생의 한마디

옥계철물건재상사
현상권·박희우 대표

30 소중한 진실

작품 판매 수익금 기부하며
나눔리더 가입한
도도새 작가 김선우

32 나눔 소식

사랑의열매 장기기부자 초청 행사 현장



34 착한기업

신종 감염병 체외 진단 전문 업체
(주)코젠바이오텍

38 다른 그림 찾기

39 전국 열매 이야기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

52 사랑의열매 창립 25주년 기념 전시회

53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4 전국 지회 뉴스

64 나눔 만화

이달의 표지



○ 양서연
'감천문화마을 풍경', 90×60cm
watercolor on paper

사랑의열매

발행인 김병준
발행일 2023년 11월 / 통권 199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커뮤니케이션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증,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 구독 혹은 구독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ckkpr@chest.or.kr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세요.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를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성실함으로 예술적 재능 꽃피우는 양서연 작가

“나의 리듬이 보이시나요?”

양서연 작가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나에 매달리지 않고, 그때그때 꽃히는 대상을 파고든다. 하지만 그 속에 흐르는 주제는 단 하나, 세상과 공유하고 싶은 자신만의 아름다운 노래뿐이다.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숨길 수 없었던 예술 재능

다섯 살 무렵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양서연 작가. 몸도 허약해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야 겨우 연필을 손에 질 힘이 생겼다. 그때부터였다. 연습장이고 공책이고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말이다. 양서연 작가의 어머니 이숙희 씨는 딸이 화가가 되리라곤 상상도 못하고, 그저 낙서로 치부해 습작들이 쌓이면 버리곤 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 양서연 작가가 미술 대회에서 입상하면서 관계자로부터 “그걸 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야단 아닌 야단을 맞고서야 딸의 재능을 비로소 알았다고 했다. 양서연 작가는 옆에서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다. <사랑의열매> 11월호 표지로 선정된 ‘감천문화마을 풍경’을 그린 양서연 작가는 2016년 고등학교 재학 중 일반인 대상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특선을 시작으로 대한민국회화대전, 국제장애인미술대전 등 수많은 대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이번 표지는 대회에서 한창 상을 받던 시기에 그린 작품이다. 좁은

작가 주요 profile

- 개인전 3회, 아트 페어 7회, 그룹전 70여 회
- 2023 <Painter's Dream전>/ 강남구민회관
- 2023 서울시 초청 양코르 특별 기획전 <세상을 밝히는 명작전>/ 시민청갤러리
- 2023 LUSH 아트 페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특별전/ 국립수목원
- 2022 <ACEP 2022 붓으로 틈을 깨다II>/ 예술의전당
- 2022 <Dreamability전>/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 2021 양주시 공공 미술 프로젝트 참가/ 양주 옥정중앙공원 조각품 설치
- 대한민국회화대전을 비롯한 전국 공모전에서 다수의 상 수상

골목을 따라 들어선 크고 작은 집들이 조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양서연 작가는 “많은 집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자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웃음과 눈물, 한숨 등 사람들의 감정이 마치 노래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양서연 작가의 작품에는 무엇을 그리든 그만의 리듬이 느껴졌다.

큰 용기 준 표지 선정

양서연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면 인물과 풍경, 그리고 풍경에 음표들이 더해지는 비구상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양서연 작가는 미술 활동뿐 아니라 명지대학교 콘서바토리 과정에서 플루트를 전공하는 학생이면서 양주 ‘드림.투.앙상블’의 플루티스트로서 연주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딸이 미술보다 음악에 더 재능이 있다고 믿을 정도다. 그러나 정작 양서연 작가 자신은 악보를 읽고 플루트를 연주할 때나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때나 별다른 게 없다는 표정이다. 마치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그만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찾는 일은 그림이든 음악이든 다를 게 없다는 듯.

그러나 작가의 어머니는 작품 속 음표를 마음 아파했다. 사실 양서연 작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갑자기 찾아온 뇌전증으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인터뷰가 진행된 날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불쑥 찾아온 뇌전증은 악보 외우는 일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럴수록 작가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멜로디를 그림에 더 투영시켰다. 단순히 음표를 그려 넣는 것을 넘어 리듬감이 살아있는 추상 작품으로 깊이가 더해졌다. 현재 작업 중인 작품 대부분이 그랬다. 하지만 엄마 마음이란 또 다른 것. 전처럼 악보를 외우지 못하게 된 딸의 건강이 염려될 뿐이다. “얼마 전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대외 활동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사랑의열매> 표지 작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것 같아 큰 위로가 되었죠.” 양서연 작가는 정말 큰 용기를 얻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다시 붓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노래가 완성될 날이 기다려진다. 🌸

화려한 여운을 즐기는 가을꽃 명소

겨울을 앞두고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는

가을꽃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거기에 운치를 더하는 역새며 갈대는

눈부신 빛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늦가을에 눈여겨볼 가을꽃 축제를

소개한다. 글강은진 사진 한국관광공사

울산태화강국가정원 안성팜랜드

서울시·합천군 공식인스타그램



국화 향에 취하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시 중구 태화동과 남구 무거동·신정동 일원에 걸쳐 83만 5,452㎡로 생태·대나무·무궁화·참여·계절·수생 등 6개의 주제 정원과 녹지 및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한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이다. 가을이면 핏 아우돌프(Piet Oudolf)의 자연주의 정원을 비롯해 가을 국화, 핑크물리, 팜파스 그라스, 코스모스, 물억새의 은빛 물결 등이 장관을 이뤄 방문객을 맞는다. 특히 국화정원에는 활짝 핀 노란 국화가 흐드러지게 펼쳐져 있는데, 가을 정취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또 멕시코 역새라 불리는 키 큰 팜파스그라스도 만나볼 수 있다. 깃털 모양의 풍성한 이삭이 이국적이며, 다른 가을 식물과 잘 어울린다. 국가정원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나무 숲 정원인 심리대숲과 일본·중국·한국의 대나무 63종을 볼 수 있는 대나무생태원,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초화단지 등도 있으니 여유 있게 돌아보자.

📍 울산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도심속역새군락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

매년 10월이면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 초지에는 역새꽃이 6만여 평의 공간을 가득 메워 장관을 이룬다. 굳이 가을 축제를 찾아 멀리 갈 필요 없다. 2002년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에서 월드컵공원 환경생태공원으로 거듭났으며, 당시 매립지의 척박한 환경이 자연으로 복원되는 변화를 표현하고자 전국 23개 도시의 역새를 가져다 심었다. 도심에선 보기 드문 규모의 광활한 역새 군락지가 감탄을 자아낸다. 역새밭 사이로 난 넓고 좁은 23개 사잇길에서는 사진을 찍으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 좋다. 10월 중순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는 '서울역새축제' 기간에는 1년 중 유일하게 밤 10시까지 개방된다. 군락지 자체가 높은 언덕이라 밤이면 서울의 야경까지 덩으로 즐길 수 있으니, 축제 기간을 기억해두면 좋다. 올해는 핑크몰리 대신 코스모스가 방문객을 맞는다. 축제가 끝나면 각종 행사는 종료되지만, 한층 깊어진 역새밭 풍경은 여전하니 실망할 필요는 없다.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95



핑크몰리 신혼 명소
합천 신소양체육공원

핑크몰리는 미국 동남부가 원산지인 서양 역새의 한 종류다. 우리말로 '털쥐꼬리새' 혹은 '분홍역새'라고 한다. 가을이면 연한 분홍빛을 띠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짙은 자주색으로 변하는 이국적인 식물이다. 최고의 명소를 꼽아보라면 단연 합천 신소양체육공원이다. 합천읍 황강 나룻길 수변 공원에 위치한 이곳에는 평지가 아닌 완만한 산책로를 따라 풍실풍실 분홍빛 핑크몰리가 언덕에 한가득이다. 아무 데서나 찍어도 인생샷이 나오는 SNS 핫플. 이 밖에 공원에는 바늘꽃·구절초·역새 등 가을꽃이 총집합해 있으니, 꼭 방문해볼 만하다.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898



인생 사진 찍으려면
농협안성팜랜드

여기도 핑크, 저기도 핑크, 핑크빛 세상이 펼쳐지는 농협안성팜랜드다. 26만 1,000m² 규모의 농협안성팜랜드는 체험, 휴식,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국내 최대 농축산 테마공원으로 유명한 곳이다. 사계절 볼거리, 놀 거리, 즐길 거리로 풍부한 곳이지만 가을이면 농협안성팜랜드 내 9만 9,000m²에 달하는 넓은 언덕 '그림 같은 초원'에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해바라기, 핑크몰리 등이 만개하며 가을꽃 천지를 이룬다. 특히 올해는 코스모스가 만개한 '핑크로드'를 새롭게 조성해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바람이라도 불면 일렁이는 코스모스의 연분홍 파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곳곳이 포토 존이지만, 물리동산 꼭대기에 우뚝 선 한 그루 소나무 '즐겁송'은 1969년 농협안성팜랜드가 문을 열 때부터 이곳을 지켜온 랜드마크이자 전국구 포토 존이니 꼭 한 컷 남기자. 이 밖에도 체험 목장에선 산양, 양, 염소 등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은 물론 시간대별로 가축 퍼레이드, 돼지 레이싱, 양 떼 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아이들과 함께 가기 제격이다. 🍀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28



맛나당칼국수 광재현 대표

창업 반세기, 시장님도 줄서는 정통 로컬 맛집

맛집이라는 말로는 한참 부족하다. 역사와 전통, 맛과 개성,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추억까지 헤아려보면 그렇다. 50여 년간 제대로 된 칼국수 한 그릇을 끓여내고 있는 곳, 세종시 맛나당칼국수다. 글강은진 사진서벌세



진짜 맛있는 노포란 이런 곳

맛나당칼국수를 찾아가던 길, 솔직히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방송에 소개된 유명한 식당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이한 메뉴도 아니었다. 물론 가기 전, 검색 등 사전 조사를 했다. 맛있다는 리뷰도 많고, 단골도 꽤 되는 오래된 칼국수집이긴 했다. 하지만 웬만한 노포에는 다 붙어 있다는 ‘백년가게’ 같은 인증마크 하나가 없었다. 그저 어느 동네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칼국수 식당이었다.

그러나 엄청난 오관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수타면이라고 요란하게 간판을 걸고 맛보다 퍼포먼스로 승부하는 집도 적지 않은데, 이곳은 식당 가장 안쪽에서 조용히 직접 면을 반죽해 만들면서도 가게 어느 한 군데 안내나 광고 문구가 없다. 단순히 손님으로 방문했다면 직접 만든 면인 줄 모를 뻔했다.

“아버지가 가게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손수 면을 만들어오셔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다른 생각은 못 해봤어요. 또 육수 끓이고, 곁절이 버무리고, 만두소 만들고... 이런 건 다 직접 하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시작해도 하루가 짧아요.(웃음)”

맛나당칼국수 2대 사장 광재현 대표는 오랫동안 직접 빚어오던 만두를 얼마 전부터 소만 만들고, 모양은 틀을 이용한다며 멋쩍게 웃었다. 시중 제품을 떼다 파는 것도 아닌데, 어딘가 미안한 듯한 표정이었다. 칼국수 맛을 보기 전이었지만, 광재현 사장의 태도에 맛나당칼국수에 대한 믿음은 최고조에 달했다. 멀리서 장인 찾은 일이 아니었다. 진짜 제대로 된 노포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착한가게도 시작한 지 10년이 거의 다 되어갈 거예요. 오래돼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앞으로 더 오래 해서 다음엔 100년 된 착한가게로 소개되고 싶네요!”

세종시 대표할 100년의 맛

맛나당칼국수의 메뉴는 칼국수와 고기만두, 김치만두뿐이다.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종류별로 주문한 후 또 놀랐다. 고깃집이나 샤부샤부식당에서 쌈 채소 나오듯 큰 양푼에 싱싱한 썩갠 것을 듬뿍 담아주는 것이 아닌가. 충청도 지역엔 썩갠 것을 올리는 칼국수가 많다. 하지만 고명 수준이지, 이렇게 따로 한 줄이나 주는 집은 처음 봤다.

피날레는 칼국수였다. 빨간색 국물이 장칼국수였거나 했다. 그런데 웬걸! 고추장 맛도 된장 맛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라면 국물 같은 인스턴트 맛은 더욱 아니었다. 매콤함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드럽고 깊은 국물 맛, 정말이지 자꾸 생각날 것 같았다. 거기에 면과 어우러짐이 완벽했다. 두 껍지 않은 면발은 그냥 그대로 즐기고 싶을 만큼 담백했다. 씹을수록 구수한 뒷맛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싱싱한 썩갠 것을 씹어 올려 먹으니 이 또한 완전히 다른 맛이다. 국물의 부드러운 매콤함과 면발의 고소함에 더해지는 썩갠 향긋함이라니!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면 소재지 동네 칼국수집에 점심시간이면 시장님까지 줄 서는 이유를 대번에 알 수 있었다.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연락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뭐 내세울 게 있다고 방송이나 동네마다 유명한 집 하나씩 다 있는 게 칼국수인데, 칼국수가 비싸봐야 맛있어봐야 칼국수지’ 하시며(웃음)… 다 거절하시고, 유난 떨지 말고 음식 만들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거절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으며 웃는 광재현 대표. 이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이 칼국수를 끓이고, 만두를 찐다. 매일같이 오는 단골은 물론이요, 근처를 지나면 무조건 들르는 손님부터 명절 귀향길에 꼭 먹고 간다는 고향 사람들까지 저마다 맛나당칼국수에 대한 추억이 많아 이번 추석에도 차례만 지내고 가게 문을 열었을 정도다.

“네가 해도 되겠다” 최고 찬사

맛나당칼국수가 처음 장사를 시작한 게 1975년이다. 올해로 48년째로, 거의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다. 방송은 거절한 탓이지만, 백년가게 인증은 충분한데 왜 없는 건지 궁금했다. 그리고 거기엔 재미있는 일화가 숨어 있었다.

“그러잖아도 백년가게를 하자고 심사가 나왔는데, 그때 보니까 사업자가 식당이 아니라 여관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면사무소에 신고하러 갔는데, ‘맛나당’이라는 상호를 무슨 ‘장’으로 들은 직원이 그냥 여관 같은 텐 줄 알고 그렇게 등록했던 거 봐요.(웃음) 당시엔 워낙 시골이고 하니까 종종 그런 일이 있기도 했대요.”

50여 년 역사를 자랑하는 맛나당칼국수지만, 사업자등록증 기준 28년밖에 되지 않는 식당인 그야말로 ‘웃픈’ 연유였다. 시간이 지나 맛나당칼국수에 백년가게 인증 마크가 붙는다면 그것은 ‘100년을 갈’ 가게가 아닌 ‘100년이 된’ 유일한 곳이 아닐까 싶다. 썩갠 것도 그렇다. 충청도 지역은 썩갠 것을 고명으로 올리는 칼국수집이 많다. 그중에는 유명 프랜차이즈도 있다. 그래서 다른 집들을 따라 한다고 오해도 종종 사지만, 맛나당칼국수가 썩갠 것을 낸 지는 20년이 넘었다. 마트를 하는 지인이 주문을 잘못했다며 썩갠 10박스를 그냥 준 게 시작이었다. 지금은 물량을 다 감당하지 못해 전문 농장과 계약해 공급받고 있다. 썩갠 것이 많이 나지 않는 한여름엔 부추로 대체한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면 썩갠 언제부터 제공하느냐는 손님 전화가 꽤 와요. 어떤 손님은 썩갠만 몇 그릇 드시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손님은 이 집은 면발이 진짜라며, 썩갠은 손도 안 대시고 칼국수만 드시기도 하세요.”

맛나당칼국수의 면은 다양한 재료를 배합한 반죽으로 만든다. 빨간 옥수와 더불어 맛나당칼국수의 비법인 썩이다. 아버지 뒤를 잇고 있는 광재현 대표에게 최고의 찬사는 “아버지 말고 이제 너 혼자 해도 되겠다”는 단골들의 말이라고 한다. 비록 면사무소 직원은 여관으로 착각했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한 상호다. “아, 맛나당!” 🍲



1 세종시 부강면에 자리한 맛나당칼국수. 1975년에 처음 문을 열었다.
2 맛나당칼국수와 만두. 면부터 옥수, 곱절이까지 모두 직접 만든다.

고장 난 우산, 새것처럼 똑딱!

환경 지킴이로 나선 우리 동네 우산 수리 서비스

우산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물건 중 하나다. 비가 올 때는 물론 비 예보가 있으면 우산을 챙겨 외출하고, 깜빡했더라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그만큼 버려지는 우산이 많다는 것. 고장 나는 순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우산, 고쳐 쓸 순 없을까? 글강보라 사진 서대문구청



한 해에 판매되는 우산 수가 전체 인구수와 맞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산은 구매가 잦은 품목이다. 고치기도 어렵지만 버리기도 까다로운 게 사실이다. 완전히 망가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우산은 분리배출해야 하는데, 손잡이와 꼭지는 플라스틱류, 우산살은 고철류, 우산 커버는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일일이 분해해 버려야 한다.

망가진 우산을 고쳐 쓰면 환경에도 좋고, 경제적이다. 특히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우산 수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이웃과 함께 하는 자원 봉사 일환으로 우산 수리 봉사단 '황금손'을 운영하고 있다. 우산 수리와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 가운데 선발했으며, 우산 수리 양성 교육과 예비 수리 실습을 거쳐 실제 봉사에 나섰다. 이처럼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해주는 서비스는 주민들의 호평 속에 순항 중이다.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수리하기 어려운 우산을 기부 받기도 한다. 망가지지 않은 살이나 대, 손잡이 등을 수리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품을 간단히 갈아 끼우기만 해도 새 생명을 얻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자원 재활용인 것.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기적으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우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 접근성까지 고려했다. 고장 난 우산 수리, 이제 무료로 손쉽게 가능하다! ♡



1 지자체 우산 수리 서비스는 물자 절약과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다. 2 망가진 우산은 황금손 봉사자의 손길을 거쳐 새 생명을 얻는다

우산 수리 이용 팁!

- 신청 방법** 현장 접수
 - 대상** 해당 지자체 주민이면 누구나
 - 운영 시간** 지자체 별도 문의
 - 비용** 무료
 - 내용** 고장 난 우산 수리(1인당 2개 한정)
 - 수리 범위** 살 부러짐, 꼭지 빠짐, 손잡이 교체 등
- *수리 불가: 고가의 우산(수입 우산 및 골프 우산), 일회용 우산, 재료가 없는 경우, 전문가 수리가 요구되는 경우 *부품 재활용을 위한 우산 기증 환영

지자체 우산 수리 서비스 문의

-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02-330-1365
- 서초구 우산수리센터 02-579-4781
- 강동구 우산무료수리센터 02-3425-6964
-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02-879-6673
-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02-2127-4969
- 성북구 일자리정책과 02-2241-3945
-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2634
- 수원시 일자리사업팀 031-228-3272
- 인천 계양구청 사회적경제팀 032-450-6777

지친 마음까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몸에 난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료하기가 더 어려운 법이다.
특히 마음속 깊이 남은 상처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일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아물지 않은 마음속 상처를 가진 이들을 위해 사랑의열매는 전국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다양한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전개 중이다.

클이선희 사진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미세스손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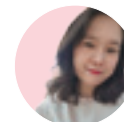
한부모 모자 가구의 심리·정서치유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가족마음충전소

▶ 한부모 가족은 가정 내 정서적 불안정과 상실감을 경험해 가족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 이에 광양시가족센터에서는 SNNC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가족의 심리·정서 발달을 진행 중이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가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과 건강한 자녀 양육을 돕는 부모 교육 등을 지원하는 ‘엄마마음충전소’ 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관계 향상을 도모하는 ‘가족마음충전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아이마음충전소’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술 치료로 아이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또한 놀이 치료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 건강한 정서 발달을 지원한다.



1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가족마음충전소
2 그동안 못 한 감정 표현을 하며 정서 교류를 나누는 가족 캠프 3 한부모 양육자의 정서 문제를 되돌아보고 깊은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주는 연극 치료

MINI INTERVIEW



광양시가족센터 노명선 팀장

Q **사업 진행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진심'입니다. 상처받은 가족이라 때로는 뾰족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더 나은 삶을 함께 계획하기 위해 진심이 필요합니다. 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반응을 상상하며 누구라도 참여하고 싶은 사업을 기획하고자 노력합니다.

Q **기존 사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을 차별화했나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족 대상자를 모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센터는 한부모 유형별로 모자 가정, 부자 가정, 다문화 한부모 가정으로 나눠 각 집단 유형의 특성에 맞게 상담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등을 세분화해 운영합니다. 한부모 가족 모집을 넘어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화를 이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한은행 자녀 성장 지원 사업 신한多꿈터II



▶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신한은행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지난해부터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주 배경 아동에게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진행하는 '한국어공부방', 그림책을 읽고 직접 활동지를 작성하며 아이들의 내적 성장을 지원하는 '그림책이야기' 프로그램과 함께 심리·정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심리·정서 지원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중 감정 기복, 의사 표현 문제, 자기 표현 부족, 불안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대일 미술 치료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불안, 정서 문제, 공격 행동, 사회적 미성숙 등이 대부분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

1, 2 '책 읽는 연습이 되었다',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 등 긍정적 피드백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이야기' 프로그램 3 아직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이주 배경 아동을 위한 한국어공부방



자녀 성장 지원 사업 신한多꿈터. 2022년에 시작해 올해로 사업 2년 차에 접어들었다.

MINI INTERVIEW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팀장

- Q **해당 사업이 국가 지원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해 '언어 발달 지원 사업', '다문화 가족 자녀 사회 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아이를 위한 한국어 학습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심리·정서 지원(미술 치료)의 경우 센터 자체 기본 사업으로 운영되지 않고, 외부 연계나 펀딩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신한多꿈터 프로그램으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대일 상담 지원 등 지금까지 센터에서 쉽게 운영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Q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점이 있다면요?** 성장 모니터링 회의 진행을 통해 각 프로그램별 아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변화를 파악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며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Q **이주 배경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한 기존 사업과 비교해 차별화를 이룬 점은 무엇인가요?** 중도 입국 자녀, 외국인 자녀의 경우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한국어를 배울 곳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초 0~1단계반을 운영해 학교 입학 전이나 학교 입학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한국어 능력을 키워주고,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 Q **신한은행과 사랑의열매 지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신한은행과 사랑의열매 덕분에 그동안 진행하지 못하던 다문화·중도 입국·외국인 자녀를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아닌 3년 동안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고, 그만큼 많은 아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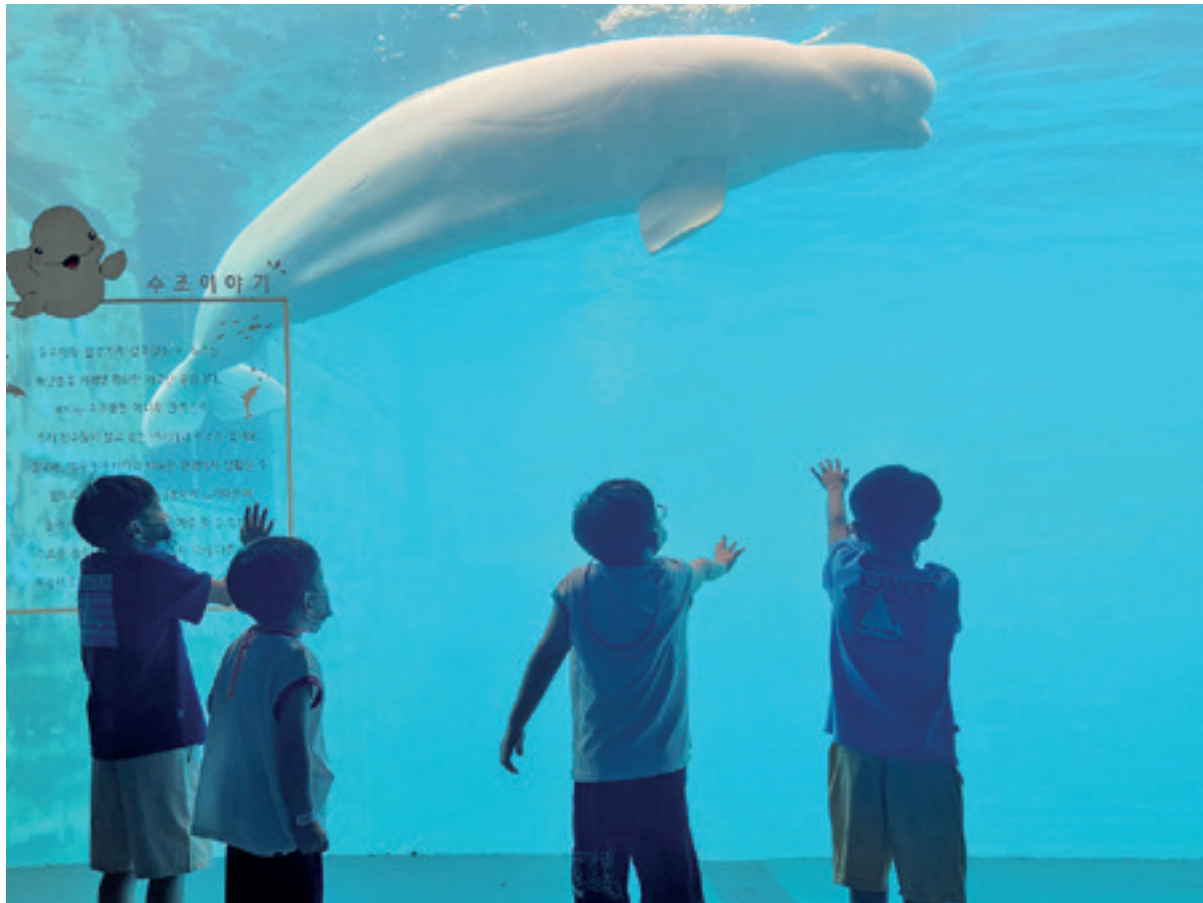
아동 학대 응급(보호) 조치 아동 보호 및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지원 사업

신한-SOL Guard



▶ 학대 피해로 보호자와 분리된 아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어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는 신한금융그룹의 후원과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3년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응급(보호)조치되어 분리된 아동에겐 긴급 보호 지원으로 의료비와 의복 및 생필품 등을 제공한다. 또 학대 피해로 인한 불안감, 원가정에서 분리된 불안정, 상실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 치료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에겐 보호 아동 적응 지원이 이루어진다. 학대 피해 후유증 및 트라우마 치료, 효능감 향상을 목적으로 심리·정서 지원과 아동 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또한 아동이 원가정 복귀 후 안전하게 양육받기 위해 보호자 심리 검사와 치료,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보호 아동 적응 지원 중 하나인 문화 체험 활동.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고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1 원가정에서 문화 체험 활동이 많지 않은 아이들에게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2 작품을 만들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공예 프로그램 3 정서 발달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

MINI INTERVIEW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본부 임팩트사업팀 김한울 대리

- Q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학대 피해 아동이 타 아동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의·식 지원과 함께 학업,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원합니다. 아동들이 직접 옷을 골라보고, 하고 싶었던 여러 경험을 하고,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참여를 요청하고 해당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Q **학습·의복·생필품 등의 지원도 함께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대 피해 아동은 심리·정서적 결핍뿐 아니라, 여러 결핍을 함께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학대를 가했다면, 해당 아동은 학대에 대한 심리·정서적 불안 및 우울,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한 외상, 계절과 체형에 맞지 않은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복합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방면의 지원을 통해 아동이 학대로 인한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사회에 잘 적응해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Q **원가정 복귀를 위해선 아동과 가정에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원가정 복귀 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부모(행위자)와 아동의 유대감 회복과 재학대 예방입니다. 부모와 아동이 떨어진 시간만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1일 프로그램이나 외식 등을 제공하고, 후에는 1박 2일 여행을 함께 떠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와 함께 학대 위험도를 낮추고자 양육 교육이나 의사소통 교육, 부모 심리 검사 및 치료 등을 병행합니다.
- Q **기존 지원 사업과 비교해 차별화를 이룬 점이 있다면요?** 본 사업은 아동 및 가정에 다방면의 지원을 함과 동시에 분리된 아동이 생활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분리되어 보호받고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점이 타 사업과 차별화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

기증자 유가족 심리 치료를 위한
'생명의소리합창단' 지원 사업

“장기 기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얻어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 만나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생명의소리합창단이다. 글 강은진 사진 한국기증자유가족지원본부



병원에서 공연 중인 생명의소리합창단.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매년 1회 정기 공연과 함께 정부 기관이나 병원 등 기타 장기 기증 관련 기관의 각종 행사 초청 공연 등을 한다.



사람을 살리는 하모니

“꼭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 말은 기증자 유가족이 수혜자에게 하는 가장 간절한 말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현재 법적으로 장기 기증자 유가족과 직접 이식을 받은 수혜자가 만날 수 없다. 하지만 생명의소리합창단 활동을 통해 수혜자나 그 가족을 만나게 될 때면 유가족은 하나같이 “꼭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수혜자들은 이미 자신의 가족만큼이나 소중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공식 창단된 생명의소리합창단은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기증자유가족지원본부가 운영하는 상설 합창단이다.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기증자의 유가족과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 및 장기 기증 희망 서약자로 구성된 세상에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합창단이기도 하다.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재)한국기증자유가족지원본부는 생명이음을 실천한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자의 예우와 함께

그 가족을 돕고, 올바른 장기 기증 문화를 형성해 장기 기증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그리고 2018년부터 CJ나눔재단과 사랑의열매가 지원해오고 있는데,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기증자 유가족 심리 치료 지원 사업'이다.

CJ나눔재단과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생명의소리합창단은 매년 정기 공연과 함께 정부 기관이나 병원 및 기타 장기 기증 관련 기관의 각종 행사 초청 공연 등을 통해 장기 기증 문화가 형성되도록 활발하게 활동하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장기 기증 홍보 사절단'이다.

장기 기증 급감, 홍보 지원 절실

2000년 장기 기증법 시행 이후 장기 및 조직 기증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수년 전 일부 언론 보도와 장기 기증에 대한 부정적 댓글 등의 영향으로 급감한 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 및 조직 기증의 부족으로 이식받기만을 기다리다 결국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장기 이식 대기자뿐 아니라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장기 기증의 소중함을 알리는 적극적 홍보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장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증을 경험한 가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장기 기증 유가족은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과 상실감으로 외부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 꺼릴 뿐 아니라, 자책과 우울감 등으로 대부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족을 잃은 아픔은 유가족 스스로 이겨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외부의 도움을 통해 치유 과정을 거쳐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주변의 친척과 친구 및 직장 동료에게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생명의소리합창단 활동이 유가족의 심리 회복을 넘어 장기 기증 인식 변화에 크게 기여하는 이유다.

장기기증인식개선에큰역할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에 갇힌 기분이었다.” “속을 아는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았으나 서나 아이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사는 게 죄스러웠다.” 유가족들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마음을 위로하는 (재)한국기증자유가족지원본부 생명나눔 사랑나눔방에서 오간 말이다. CJ나눔재단과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기증자 유가족 심리 치료 지원 사업’은 생명의소리합창단과 함께 기증자 유가족 대상 전문 심리 치료 프로그램, 대국민 홍보 및 유가족 네트워킹, 유가족 사랑나눔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 기증 관련 주제곡을 매년 한 곡씩 새로 제작해 정기 공연 때 발표하고 있는데, 벌써 여섯 곡에 달한다. 특히 장기 기증자 사연을 담은 가사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그중 ‘아름다운 동행’은 장기 기증자와 이식 수혜자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행한다는 내용으로, 영어로도 번역돼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합창하곤 한다. 2019년 11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대한이식학회 학술 대회(Asian Transplantation Week) 초청 공연에서 많은 외국인의 기립 박수를 받기도 했다.

기증자 유가족 심리 치료 지원 사업은 기증자 유가족이 우울증과 자책감에서 벗어나 생명의소리합창단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복귀를 유도하므로 유가족의 2차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취약 계층 이웃들에게 합창단 정기 공연 음원 CD도 배부해 합창을 듣게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의소리합창단은 오늘도 노래한다. 장기 기증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으로 인식하는 그날까지 생명의 하모니는 계속될 것이다. 🍀



합창 연습실 풍경

SPECIAL INTERVIEW

“장기기증 활성화, 기증자 유가족의 긍정적 태도가 관건”



한국기증자유가족지원본부
이철하 사무국장

생명나눔 강연자로 많이 참여하십니다. 특히 이분들은 가족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 등을 강조하는데, 강연을 진행한 학교로부터 자살 예방 효과까지 나타난다는 후기를 자주 전달받습니다. 그때마다 유가족들의 활발한 대외 활동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궁금합니다. 2018년 9월 정부의 생명나눔주간 선포식에서 공연한 적이 있다. 그때 행사에 참석했던 레그 그린 씨가 공연 후 따로 찾아와 직접 고맙다는 인사를 해준 것이다. 레그 그린 씨는 가족들과 이탈리아 여행 중 아들 니콜라스가 사고로 사망하자 현지에서 장기를 기증해 세계적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한 분이다. 이후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니콜라스 효과’라는 말까지 생겼다.

CJ나눔재단과 사랑의열매 지원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장기 기증과 관련한 주제의 동영상 제작해 방영하는 등 정기 공연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졌다. 그뿐 아니라 기타 합창단 연습이나 그 외 초청 공연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웃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2022년 말 기준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대기 환자 수는 4만 1,000명이 넘는 데 반해 뇌사 장기 기증자 수는 405명인 상황이다. 또 기증만 받으실 수 있지만 기증을 받지 못해 죽음을 맞는 환자는 하루 평균 7명 정도 된다. 장기 기증은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 보다 많은 사람이 생명의소리합창단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특별히 합창단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이 뭐가 좋다고 노래를 하느냐는 날 선 말을 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기증자 유가족은 치유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우리 합창단 유가족도 처음 들어오면 연습 때 그냥 울기만 하신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도 그 마음을 아 니까 따라서 같이 우신다. 이렇게 동병상련으로 같이 울고 같이 노래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지내다 보면 표정도 훨씬 밝아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확인할 수 있다. 노래가 지닌 치유와 회복의 힘이다. 합창단 새 단원들 대부분이 기존 유가족 단원들의 권유로 들어오는 것만 봐도 합창단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

합창단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 인가? 합창단원 중 기증자 유가족분들이 전국 중고교 학생 대상

2019년 경주에서 개최된 대한이식학회 학술 대회 초청 공연 모습. 참석한 많은 외국인으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았다.



2023년 대전 첫 부부 아너
옥계철물건재상사 현상권·박희우 대표

“이웃사랑에 대한 보답, 부부 아너 가입으로 완성했죠”

현상권·박희우 대표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사업 파트너다. 두 사람이 평생 일군 옥계철물건재상사는 대전 지역에서 규모가 큰 철물점으로 자리 잡았다. 부부는 지난 세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너 가입을 준비했다. 이웃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글강보라 사진이승재

현상권·박희우 대표는 오래전부터 지역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부부의 이러한 결심은 대전 아너 108·109호의 동반 가입으로 이어졌고, 기탁 성금은 옥계철물건재상사가 자리 잡은 대전 중구의 소외 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40년 넘는 세월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이웃들에 대한 화답이었다. 얼굴을 마주한 부부는 “이제야 제대로 된 보답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지역사회보답으로 시작한 나눔

옥계철물건재상사는 건축·배관 자재부터 생활용품, 각종 전동 공구 등 수만 가지 물품을 취급하는 종합상사다. 쉬는 날은 매달 셋째 주 일요일로 한

달에 단 하루뿐. 아침 6시에 문을 열어 저녁 6시 30분에 문을 닫는 일을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현상권·박희우 대표는 근면 성실로 지금의 성공을 이뤄냈다.

“돌이켜보니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더군요. 열과 성을 다했고, 그런 노력을 주변에서 알아주셨기에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현상권 대표

처음 놓은 주춧돌 위에 이웃들의 신뢰와 사랑이 쌓여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부부는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아너 가입을 결심했다.

“대전 중구에서 시작해 이만큼 성장했잖아요. 오랜 시간 이웃들이 찾아주고 사랑해주셨으니 수월하게 성장할 수 있었죠. 뿌리내린 곳에 열매를 돌려드리자는 마음으로 아너 가입을 서둘렀습니다.”-박희우 대표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지출을 했다”고 말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인생의 1막을 기부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흐뭇하고 뿌듯합니다. 아내와 함께 하니 기쁨이 두 배로 커지는 기분입니다.”-현상권 대표

현상권 대표는 남은 생은 ‘기부 욕심’을 내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나이가 들면 돈을 쓸데가 줄어들거든요. 소화력이 떨어져서 음식 섭취량도 줄고, 물건을 살 때도 크게 신이 나지 않죠. 자연스럽게 욕심도 줄어는데, 말년에 기부 욕심만큼은 내보고 싶습니다. 기부만큼 행복하고 만족도 높은 소비는 없으니까요!(웃음)”-현상권 대표

아너 가입으로 손님들에게 ‘돈쫓’났죠

현상권 대표는 아너 가입 이전에도 주민 참여형 복지 네트워크인 ‘석교동 복지만두레’ 명예회장과





부부 아너를 넘어 패밀리 아너를 꿈꾸는 현상권·박희우 대표는 나눔을 지지해준 자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어른으로 성장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보살피고 있었다. 일상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이었다. 그런데 이번 부부 아너 가입으로 나눔 소식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옥계철물건재상사를 찾는 손님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아너 가입 이후에 매출이 더 늘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좋은 일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 손님들 덕분에 요즘 말로 ‘돈쫓이’났죠.”-현상권 대표
돈쫓이는 ‘돈+흔쫓’의 합성어로, 선행을 베풀거나 좋은 일을 하는 사업장에 돈으로 흔쫓을 내준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좋은 일을 했으니 돈 버느라 바빠봐야 정신을 차리지’라는 식의 따스한 유머가

담긴 말이다.

“매장에서 응대하는데, 기사를 보고 오신 분들이 저를 ‘우리 천사님’이라고 지칭하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웃음) 과한 칭찬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많은 분의 격려로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박희우 대표

현상권·박희우 대표는 투명성과 공정성 때문에 사랑의열매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너 성금이 해당 지역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대전 중구 소외 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두 사람의 기부 의도와도 일치했다.

“기부로 잇속을 차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열매는 지역복지를 촘촘하게 챙기고, 기부 내역서도 상세하게 볼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죠.”-박희우 대표

눈물겨운 맹물 국수 한 그릇

오랜 시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현상권 대표는 나눔을 ‘기쁨’이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하면 삶의 의미가 없죠. 가진 것을 나누고 이웃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벽찬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이 나누면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현상권 대표

현상권 대표가 석교동 복지만두레 회장으로 지역을 살필 때는 ‘집 고치기’ 봉사를 주도했다. 배관부터 모든 부품과 공구를 갖춘 옥계철물건재상사에 기술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이 손을 보태며 시작된 일이다. 보일러 배관 교체나 지붕, 욕실 수리 등 집수리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복지만두레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현상권 대표는 최고의 대접을 받았던 그때의 감동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

“보일러를 교체한 집인데, 그분이 점심 대접을 하고 싶다며 다음 봉사 때 꼭 들리라는 거예요. 점심은 봉사자들끼리 시켜 먹는 것이 원칙인데, 너무 간곡히 부탁하셔서 찾아갔죠.”-현상권 대표

형편이 여의치 않은 어르신은 삶은 국수를 맹물에 말아서 냐고, 현상권 대표와 봉사자들은 마음이 담긴 맹물 국수를 맛있게 먹었다.

“옥수를 낼 만한 재료도 없는데, 뭐라도 주고 싶으니 부르신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국수를 먹는데 눈시울이 저절로 뜨끈해지더라고요.”-현상권 대표

현상권 대표는 맹물 국수도 먹고, 산에서 주워온 산밤을 담례로 받으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맛’

을 느꼈다고 말한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다고 하지만, 마음이 담긴 이웃들의 표현에 도리어 위로받고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기곤 하죠. 그래서 나눔을 ‘모두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나 봅니다.”-박희우 대표

아너 가입은 끝이 아닌 시작

부부의 아너 가입을 가장 반긴 사람은 아들 현수환 씨와 딸 현지정 씨였다. 특히 옥계철물건재상사를 물려받아 이끌어나갈 현수환 씨는 “부모님처럼 아너 가입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 저희보다 아들이 주변 이웃들을 더 잘 챙겨요. 집 근처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피자나 치킨 같은 간식을 지원하는데, 제가 바빠서 깜빡하면 ‘엄마, 애들이 기다려요’ 하면서 넌지시 알려주곤 하죠.”-박희우 대표

옥계철물건재상사의 나눔 정신은 아들 현수환 씨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어 대전 중구에 단단히 뿌리 내릴 것이다.

부부 아너인 현상권·박희우 대표는 인생이 아너 가입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고 고백한다.

“나눔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걱정될 정도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이웃과 나누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얻었습니다.”-현상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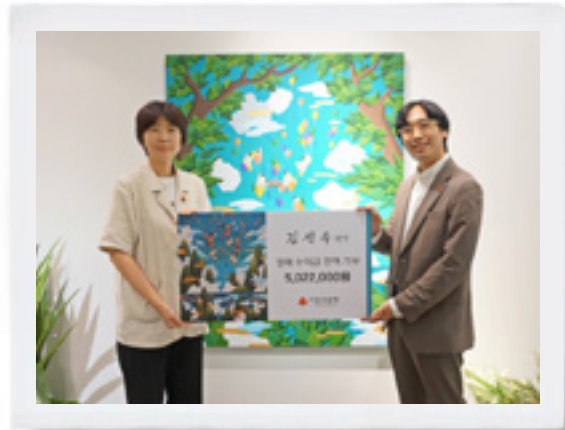
“아너 가입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의 손을 잡고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박희우 대표

부부는 지인들에게 아너 가입을 추천하며 ‘사랑의 열매 전도사로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사업 파트너에서 나눔 파트너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열었다. 아너 부부는 나눌수록 행복이 커지는 나눔 세상에서 오래도록 함께할 것이다. 🍀

작품 판매 수익금 기부하며 나눔리더 가입한
도도새 작가 김선우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항상 고민해요”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할 수 있으므로 망설이지 않고 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김선우 작가다. 글강은진 사진서울 사랑의열매, PBG



기부금 전달식의 김선우 작가(오른쪽)와 서울 사랑의열매 이윤나 모금사업팀장. 뒤로 작가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아이들급 인기, 가장 핫한 작가

거장들만 전시한다는 가나아트센터에서 최연소 나이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540만 원 하던 작품이 2년 4개월 만에 1억 1,500만 원으로 뛰어오르는 등 각종 기록을 경신하며 미술계에서 드물게 ‘아이들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가 있다. 1988년생 김선우 작가다. 굳이 출생 연도를 밝히는 이유는 그의 놀라운 인기 이해를 돕고자 함이다. 일찍이 신에 작가에 대한 이 같은 엄청난 관심은 없었다. 이른바 ‘잘나가는 작가’임에도 그는 놀라울 정도로

겸손하고 단정했다. 전업 작가로서의 성실함, 일상을 영위하는 건강함, 예술가로서 지니는 사회적 책임 등 인터뷰가 계속될수록 왜 그가 주위 지인들로부터 “변하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듣는지 알 것 같았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아 환경 단체에 정기 기부도 해왔기에 나눔이 낯설지 않았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겠다고 항상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예술이 지극히 개인적 행위이지만 가장 사회적인 산물이고,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김선우 작가가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던 그는 세계적 브랜드 불가리와의 컬래버레이션을 기념하는 이벤트 경매 작품 수익금 500여만 원을 환경보호 사업에 사용해달라며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것이다.

우리 함께 꿈꾸어요!

김선우 작가의 선행은 처음이 아니다. 크고 작은 개인 기부는 물론, 지난 3월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도도새와친구들’이라는 SNS 모금 캠페인을 기획해 62명의 팔로워 성금과 작가 자신의 성



김선우 'The Finders', 130×193cm, gouache on canvas, 2023

금을 더해 조성한 기부금 1,0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하기도 했다. 예술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김선우 작가의 모습은 그의 작품만큼이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김선우 작가는 아프리카 모리셔스섬에 서식하다 1681년 멸종된 도도새를 주요 모티브로 작업한다. 그의 이름 앞에 ‘도도새’가 호나 별칭처럼 따라붙는 이유다. 천적이 없어 날개가 퇴화된 도도새에서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스스로 많은 것을 포기하는 인간의 본질을 찾는다.

“많은 분이 도도새를 모티브로 작업한 작품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눔에도 동참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해나가겠습니다.”

묵직한 한마디를 남기는 김선우 작가. 예술이 지닌 강한 힘을 보여주는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과 김선우 작가(오른쪽)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기부금 전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랑의열매 10년 이상 장기기부자
초청 행사 현장

“기부란 평생을 걸어갈 나의 나눔 여행길이죠!”

1년도 2년도 아닌 최소 10년! 15년, 20년도 축하다.
오래도록 나눔을 실천해온 사랑의열매 장기기부자들이다.
어느 가을밤,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글강은진 사진이승재



초청 행사장 포토 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장기기부자들

성과 보고하며 고마움 전해

지난 10월 6일, CGV 여의도에서 사랑의열매 장기기부자 초청 행사 ‘나의 나눔 여행길’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장기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모금·배분사업 성과 보고를 통해 기부금 사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개최되었다. ‘나의 나눔 여행길’ 초청 행사장에는 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과 ●10년 이상 지속 장기기부자 32명 ●15년 이상 지속 장기기부자 34명 ●20년 이상 지속 장기기부자 10명과 그들의 가족, 친구, 연인 등 지인들까지 총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답례품 전달과 모금·배분사업 성과 보고, 기념 촬영 등 식전 행사와 영화 <1947 보스톤> 단체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장기기부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황인식 사무총장은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사랑의열매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기부자님들을 만나게 돼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마음이다”면서, “이웃을 위해 변함없이 보여준 나눔이라는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나눔은 곧 행복이라는 기부자들

사랑의열매 개인 기부자는 78만 1,830명에 달한다. 이 중 10년 넘게 나눔을 지속해온 장기기부자는 6,111

명이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사랑의열매 장기기부자 초청 행사장에서는 가장 짧은 기부 기간에 속하니 기부자들에게 절로 존경심이 들었다. 흥미로운 점은 참석자 대부분이 스스로 ‘장기기부자’라는 사실에 놀랄 정도로 기부를 일상처럼 여긴다는 것이었다. 남자 친구와 행사장에 온 직장인 A 씨 역시 “기부한 지 10년이나 15년쯤 된 것 같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면서, 장기간 기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해서 계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녀들과 함께 온 아버지 K 씨는 “장기기부자 행사에 초청받았더니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지더라”면서, “자꾸 어깨가 올라가는 게 기분이 좋다”며 웃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한 해 7,925억 원을 모아 7,344억 원을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성금은 사각지대 기초 생계 지원, 교통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자립 지원,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 보건 의료 지원, 심리 정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었다. 이날 상영된 <1947 보스톤>은 서윤복의 1947년 보스톤 마라톤 대회 우승을 다룬 영화다. 나눔의 장기 레이스를 뛰고 있는 기부자들을 위한 영화 그 자체다. 황인식 사무총장은 “사랑의열매도 나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로서 기부자들과 늘 함께하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

150여 명이 초청된 ‘나의 나눔 여행길’ 행사 현장





2023 코젠바이오텍 성금 전달식(누적 기부금 3억 원으로 실버 등급 승급) 모습

신종 감염병 체외 진단 전문 업체 (주)코젠바이오텍

K-바이오 기술로 이웃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갑니다

(주)코젠바이오텍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진단 키트 및 오미크론 진단 키트를 개발한 분자 진단 전문 기업이다. 공공 의료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K-진단 키트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로자다. 글강보라 사진 (주)코젠바이오텍

☀ K-방역의 시작점에는 항상 코젠바이오텍이 있었다. 코젠바이오텍은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때마다 국내 최초로 진단 키트를 개발해 공급한 기업이다. '공공 의료를 강화해야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철학으로 이웃의 일상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자처해왔다. 현재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비롯한 800여 종의 유전자 진단 시약을 중동·아프리카·유럽·아시아 등 7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익금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참여하며 사랑의열매와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2022년 2월 1억 원을 추가로 기부해 나눔명문기업 200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2022년 연말 1억 원 추가 기부를 통해 세 번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누적 성금 3억 원을 달성하며 나눔명문기업 실버 회원으로 승급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로 방역에 공헌할 뿐 아니라 나눔명문기업으로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 백신까지 마련한 것이다. (주)코젠바이오텍 백묘아 총괄부사장은 "코젠바이오텍은 교육자 출신 대표님을 비롯해 모든 임직원이 사회적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교육과 자립에 관심이 많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립 준비 청년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한 영향력이 퍼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개인별 맞춤 지원

☀ 코젠바이오텍은 임직원의 80~90%가 20~30대 청년 세대로 구성된 청년 친화 감소 기업으로, 청년 세대를 위한 복지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나눔명문기업 성금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에 지정 기탁했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 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시설과 달리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사회적 지원이 늘고 있지만, 구비 서류나 지원 조건 등으로 행정적 부분의 제약 사항이 많고, 장학 사업에 치중돼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치료비 1억 원을 기부하고 기념 촬영하는 코젠바이오텍 백묘아 총괄부사장(오른쪽) 모습





1 규모 7.5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을 지원했다.
2 현지에서 조성된 임시 주거 시설 모습

코젠바이오텍은 보호종료아동의 어려움에 공감해 행정적 부분을 최소화하고, 의료비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 개인 맞춤형 지원비 지원을 이어갔다. 또한 기프트콘 문자 발송을 통한 식사 지원비, 에어컨 설치와 환풍기 및 도어 교체 같은 시설 보강비 등 세부 항목으로 지원 청년의 만족도를 높였다. 실제로 5개월 동안 4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은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을 잠시 잊고 안정감을 느끼며 대학 생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기프트콘으로 지급된 식사 지원비도 반응이 뜨거웠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보호종료아동은 “일 끝나고 밥 차려 먹을 기력이 없을 때 요긴하게 사용했다”는 소감을 남겼고, “쉬는 날에 친동생과 함께 족발을 시켜 먹으며 일상의 여유를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후기도 있었다. 보호 종료 기간이 길수록 지원에서 멀어지기 마련인데, 이들의 자립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코젠바이오텍의 세밀한 지원 덕에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은 것이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는 이렇듯 작고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모른다.

소아암 환자 지원으로 치유와 희망을 전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매일 4명의 어린이가 백혈병을 비롯한 소아암 진단을 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소아암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소아암은 급성질환의 특성과 함께 평균 2~3년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의 특성도 있다. 80%라는 높은 완치율에도 난치병이라는 심리적 부담감과 장기 치료에 따른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감으로 치료 의지를 낮추고, 때로는 치료 포기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수입이 줄거나 직장을 잃은 소아암 환자 가족의 경우 치료비 부담에 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부모는 소아암 환자의 치료는 물론, 다른 형제의 돌봄과 더불어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아암은 아이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파괴적인 진단으로 불리는 것이다.

코젠바이오텍은 소아암 및 희귀 난치성 질환 가족들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치료비 1억 원을 기부했다. 암과 싸우는 아동의 치료와 돌봄이 한 가정의 일이 아닌 사회의 일이 되어 한다는 신념으로 기부를 결정한 것이다.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코젠바이오텍 백묘아 총괄부사장은 “어린 환자들끼리 소아암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기부금은 소아암을 비롯해 이에 준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어린이들의 수술비, 이식비, 재활 치료비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코젠바이오텍의 치료비 지원은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추가적 스트레스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아암 환자의 치료뿐 아니라 심리 치료를 통한 정서적 회복 등 치료 이후 삶의 여정까지 지원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는 각 가정의 문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시련이 닥친 가정에도 심리 지원과 지자체·정부 기관과 협약 및 제도 제안을 통해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구촌 어린이의 건강한 탄생을 위한 모자보건 지원

코젠바이오텍의 진단 키트는 전염병 진단 이외에도 할랄, GMO, 가축 질병 등의 진단 성능을 인정받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다. 인류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코젠바이오텍만의 미션을 굳건히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에서 모성, 신생아, 5세 미만의 아동을 돕는 모자보건 개선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다. 국민의 40% 이상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극심한 빈곤으로 보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질 낮은 보건 의료 서비스로 인해 모성·신생아·아동 사망률이 높은 10대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코젠바이오텍은 해당 지역 내 12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모성, 신생아, 5세 미만 아동에게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인력을 대상으로 필수 모자보건 교육을 지원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방역과 위생 물품 지원, 지역 보건 활동가 교육 및 모자보건 서비스 정보 교육 자료 개발 등도 함께 진행했다.

개선 사업 이전에는 지역사회의 보건소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다. 임산부들은 산전·산후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아동들의 예방접종률도 낮았다. 이로 인해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일이 잦았으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발병된 질병 사례도 빈번했다. 하지만 코젠바이오텍의 모자보건 개선 사업을 시작한 2019년부터 보건 인력과 지역사회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은 보건소에 가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었고, 보건 인력 역시 의료 장비 지원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개선 사업으로 모성과 신생아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코젠바이오텍의 기술력은 이처럼 생명을 보호하고,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울타리로 기능한다. 나눔명문기업이며, K-바이오의 선두 주자로 코젠바이오텍의 또 다른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3 코트디부아르 보건 시설에 코로나19 대응 방역과 위생 물품 지원 모습
4 모자 보건 교육 후 기념 촬영에 응하는 현지인들 모습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때때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갈수록 찝찝해지는 세상살이에 끝내 마음의 병까지 깊어지는 모양이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마음의 병은 절망으로 빠져들게 한다. 크고 작은 상처로 움츠러든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싶다. 오늘의 이 작은 위로가 위안이 되고, 내일을 건디는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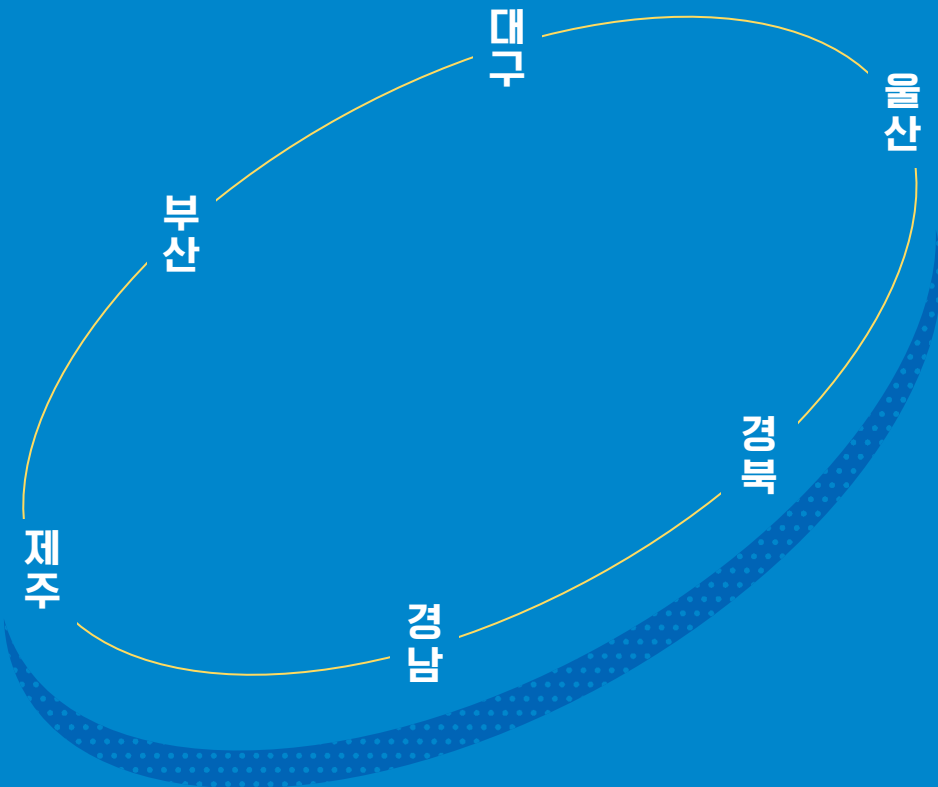


다른 부분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11월





성숙한 나눔문화 만드는 신영증권과 부산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3인 공동 가입식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위치한 신영증권 APEX패밀리오피스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가입식은 신영증권과 부산 사랑의열매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끝에 맺은 결실이라 더욱 뜻깊다.

글 길현정 사진 부산 사랑의열매



(왼쪽부터)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정성우 회장, 부산 사랑의열매 박선옥 사무처장, 최금식 회장, 신영증권 박은실 이사, 배철민 이사, 김대일 전무



성숙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신영증권과 부산 사랑의열매

“나눔은 사랑이고 감동이며 희망입니다. 함께해주신 두 분의 익명 기부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338호 신영증권 박은실 이사



업무 협약 이후 3명의 아너 탄생

이번 공동 가입식 주인공은 신영증권 박은실 이사와 2명의 익명 기부자로, 이들의 기부에 많은 관심이 쏠린 이유가 있다. 지난 2021년 신영증권과 부산 사랑의열매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획기부 및 유산기부 신탁 문화 정착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를 위해 신영증권은 계획기부자 발굴 및 연계와 유산기부 신탁 실무 관련 업무 등을 지원하고, 부산 사랑의열매는 계획기부자 관리와 기부 관련 프로그램 추진 및 사업 홍보 등을 맡았다. 협약 이후 신영증권에서는 성숙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신탁 고객을 대상으로 기부 의사를 확인하고, 아너 소사이어티를 안내해왔다. 그 결과 신영증권 박은실 이사와 함께 2명의 기부자가 아너 회원 가입 의사를 밝히며 공동 가입으로 이어지게 됐다.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9월 25일에 진행된 공동 가입식에는 신영증권 박은실 이사와 그들을 축하하고자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정성우 회장, 신영증권 김대일 전무, 배철민 이사 등 많은 이가 함께했다. 공동 가입식을 통해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338호에 이름을 올린 신영증권

박은실 이사는 “나눔은 사랑이고 감동이며 희망이다”라며 “함께해주신 두 분의 익명 기부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금식 회장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해주신 세 분의 기부자님께 감사드리고, 신영증권을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간 것 같다”며 “부산 사랑의열매도 신영증권과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1년 부산 사랑의열매와 신영증권은 계획기부 및 유산기부 신탁 문화 정착 업무 협약을 맺었다.



국채보상운동 이끈 서상돈 선생 특별 아너 회원 추대

“나라 사랑과 나눔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범국민적 모금 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됐다.
대구 아너 회원들은 국채보상운동의 나라 사랑과 나눔 정신을 계승하고자
서상돈 선생을 특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추대했다. 글 김현정 사진 대구 사랑의열매



서상돈고택 앞에서 대구 아너 회원들이 모여 서상돈 선생을 특별 아너 회원으로 추대했다.

“선대의 숭고한 나눔 정신을 지켜가고자 뜻을 함께해준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아너 회원들은 지역의 나눔문화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대표 신홍식



대구 221호 특별 아너 회원으로 추대된 서상돈 선생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받들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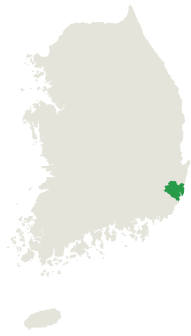
서상돈 선생은 맨손으로 시작해 보부상에서 거상이 된 민족 자산가로, 근검절약의 정신으로 자선 활동, 교육 사업 지원 등을 활발히 펼쳐왔다. 또한 1907년에는 일본에 진 나라빛을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갚아나가자는 국채보상을 이끈 민족운동가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한 우리나라 최초의 범국민적 모금 운동으로,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나눔문화의 뿌리인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됐다. 대구 사랑의열매 아너들이 서상돈 선생을 특별 아너 회원으로 추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시작한 것. 소식을 들은 대구 아너 33명이 나눔에 동참하며 단숨에 총 1억 80만 원이 모금됐다.

전국 최초 지역 명사 아너 추대

지난여름 광복절을 앞두고 대구 사랑의열매는 대구 중구 서상돈고택에서 특별 아너 회원으로 서상돈 선생의 이름을 올리는 추대식을 진행했다. 이로써 2007년 아너 소사이어티 설립 이래 지역 명사를 아너 회원으로 추대한 전국 최초 사례가 되었다. 서상돈 선생에게 부여된 아너 회원 번호 221호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대구시민의 날인 2월 21일과 같은 의미의 번호라 더욱 뜻깊다. 대구 아너 회원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이어가고자 서상돈 선생 특별 아너 추대 기금 중 일부는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는 뜻을 전했다. 앞으로도 아너 회원들은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받들어 우리나라 나눔문화의 뿌리 '대구'의 명성을 빛낼 예정이다. ♡

서상돈 선생 특별 아너 회원 추대 기금에 참여한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33인

- | | | | |
|----------------------|--------------------|------------------|-----------------|
| 김기호 (전)새마을문고 대구시지부회장 | 김영익 수성구청 공무원 | 김옥열 (주)화신 회장 | 김용태 (주)대림운수 대표 |
| 김창연 (주)동현메탈 대표 | 김현환 김현환법률사무소 대표 | 박무근 미광전업(주) 대표 | 박석근 (주)선진토탈 대표 |
| 박정훈 동산수예·침장 대표 | 변상득 KB테크 대표 | 신성철 동원섬유산업 대표 | 신홍식 대구글로벌메세나협회장 |
| 신정필 (주)세양 대표 | 우갑배 우신전력(주) 대표 | 윤영대 (주)대운D&C 대표 | 이기환 거림건설(주) 대표 |
| 이덕록 (주)서보 회장 | 이병우 호텔어기어때 대구역점 대표 | 이병훈 (주)대구스텐레스 대표 | 이봉원 (주)성암엘에프 대표 |
| 이소원 (주)서보 사장 | 이재수 대원골프클럽 대표 | 이재호 (주)한미인더스 대표 | 이창원 거림테크(주) 대표 |
| 임길포 (주)우리텍 대표 | 임석기 미진분식 2·28점 대표 | 전정승 대경안전건설(주) 대표 | 조동희 (주)제이원 회장 |
| 최병일 우성환경(주) 대표 | 최우각 (주)대성하이텍 회장 | 한대근 한창실업(주)대표 | 익명 익명 |



SK이노베이션 울산 Complex 지역사회 문제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사회 공헌 활동

SK는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 중이다.
특히 지난 9월 울산에 연이어 성금을 전달하며 보다 책임감 있는 기업 모습을 보여줘 눈길을 끈다.

글 김현정 사진 울산사랑의열매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SK이노베이션 박윤희 노동조합위원장, 울산 사랑의열매 조진호 사무처장, SK이노베이션 울산 Complex 유재영 총괄부사장과 무료 급식소 및 경로 식당 대표들이 함께한 전달식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로 식당과 무료 급식소 이용자분들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의 온기가 이어지도록 주변을 살피고 나눔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 SK이노베이션 울산 Complex 유재영 총괄부사장

SK이노베이션 울산 Complex, 식자재 지원 성금 전달

지난 9월 21일 SK이노베이션 울산 Complex가 울산 사랑의열매를 통해 관내 무료 급식소 및 경로 식당에 성금 8,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홀몸 어르신과 취약 계층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자 한 것. 특히 SK이노베이션 울산 Complex 구성원들의 급여로 조성되는 1% 행복나눔기금으로 성금을 마련해 따뜻함을 더했다. 기탁한 성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 인상, 자원봉사자 감소, 후원금 감소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울산 내 무료 급식소 및 경로 식당에 식자재 및 일부 기자재 구매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성금 전달식에서 울산 사랑의열매 조진호 사무처장은 “무료 급식소와 경로 식당에 큰 힘이 되고, 이웃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올해도 잊지 않고 온정을 전해주시는 SK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응원하는 SK에너지

한편 9월 8일에는 SK에너지(주)가 울산 사랑의열매를 통해 SK 주(酒)유소 팝업 스토어 울산점 운영 수익금 3,000만 원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달했다. SK에너지는 주유소 공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자 SK 주(酒)유소 팝업 스토어 울산점을 열었다. 7월 13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7,3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시민들의 사랑으로 모은 수익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따담공방’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꿈을 한 땀 한 땀 수놓는다는 의미를 지닌 따담공방에서는 청소년에게 창업과 직업훈련, 전문 기술 습득을 지원하며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는다. 성금 전달식에서 SK에너지 박정원 대외협력실장은 “SK 주(酒)유소 팝업 스토어 울산점을 이용한 시민들의 착한소비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가치로 선순환돼 보람을 느낀다”며 소감을 전했다. ❀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SK이노베이션 울산 Complex 박정원 대외협력실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함께한 SK 주(酒)유소 팝업 스토어 울산점 운영 수익금 전달식



4자 업무 협약으로 보다 촘촘한 사회 공헌 THE 행복한 GBDC 하우스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성

경북 도내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4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사회 공헌 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글 김현정 사진 경북 사랑의열매



지난 6월에 진행한 THE 행복한 GBDC 하우스 1호 준공식

“좀 더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며,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

좀 더 나은 경북을 만들고자 협력 약속

지난 9월 13일 경북 사랑의열매,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가 경북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4개 기관은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경북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존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사회 공헌 활동 발굴 및 굳건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업무 협약식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은 "이번 4개 기관의 협약식을 계기로 경북 전역에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 한층 확대

이번에 업무 협약을 맺은 경북 사랑의열매,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은 사회복지 거버넌스라는 이름 아래 경북도민의 주거 복지 증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은다. 특히 작년에 시작한 'THE 행복한 GBDC 하우스' 사업을 확대하기로



지난 9월 13일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 사랑의열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사회 공헌 활동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모든 기관이 동의했다. THE 행복한 GBDC 하우스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경북 사랑의열매가 함께 사업 비용을 지원해 도내 주거 시설을 개보수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난 6월 상주에 1호점을 준공했다. 사회복지 거버넌스에 따라 올해는 전년도보다 지원금을 증액하고 대상자도 확대해 한층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 이와 함께 4개 기관은 경상북도 내에 산재한 지역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



경상북도개발공사 직원들이 직접 노후 주택 철거 및 환경 정화 작업에 발 벗고 나서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은 THE 행복한 GBDC 하우스 1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살리는 사천家 청춘과자방의 달콤한 시작

과자를 만들고 포장하는 어르신들의 손길은 분주하지만, 힘든 기색 하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즐거운 표정이다. 달콤한 냄새로 가득한 이곳은 경남 사천시에 문을 연 사천家 청춘과자방이다.

글 김현정 사진 경남 사랑의열매



전통 과자를 선보이는 사천家 청춘과자방 매장 앞에 선 사업 참여자들

기획 단계부터 차별화, 자생력 인정받아

경남 사천은 수산물이 유명해 이를 활용한 전통 과자 제조와 건어물 시장이 활성화됐다. 다만 대부분 대용량으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 부담이 크다. 특히 가장 많이 채취되는 감태 활용도가 유독 떨어졌다. 이런 점에 착안해 노인 일자리 전문 사회복지관인 사천시니어클럽과 경남 사랑의열매는 협업을 통해 '사천家 청춘과자방'(이하 청춘과자방) 사업을 기획했다. 전통 과자와 건어물 등을 소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물론, 달콤 씹살한 감태 맛을 더한 오란다까지 만들어 기존 전통 과자 상품과 차별화를 이뤘다. 또한 지속적 성장 가치와 자생력까지 지녀 기획 단계부터 크게 주목받았다. 이에 지난 7월, 2023년 한국남동발전(주) 사회 공헌 공모 사업에 선정되며 청춘과자방 사업은 가속화됐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기대감 상승

청춘과자방 사업에는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발전소 인근 거주 취약 계층 노인 30명이 참여 중이다. 이들은 제조·보관·홍보·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향후 매출 증가에 따라 일자리 추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참여자는 물론 관계자들 모두 열의를 가지고 힘을 보태고 있다는 후문이다. 올해 8월부터 매장 인테리어 공사, 기자재 및 주방용품 구매, 참여자 교육 등을 진행했다. 현재는 지역 주민 대상 전통 과자 무료 시식회를 진행, 온라인 판매 절차에 돌입하는 등 10월 중순으로 다가온 정식 매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정식 오픈 이후에는 지역사회 상생 모델이자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록 신청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



사천家 청춘과자방에는 어르신 30명이 참여해 제조부터 홍보와 판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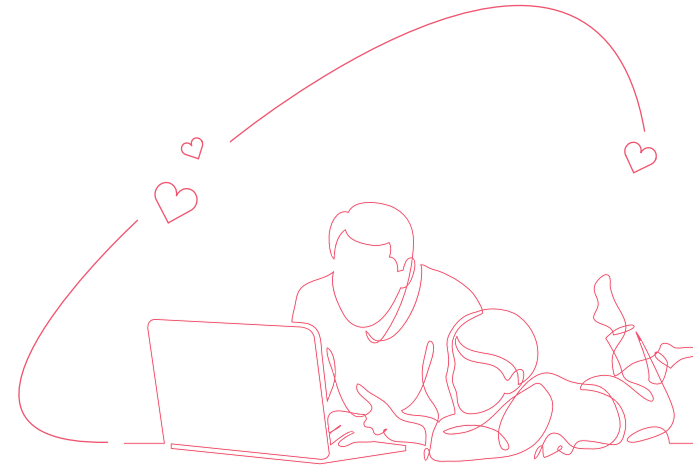
“지역 수산물을
활용해 새로운 전통
과자를 만드는 일이
너무 뜻깊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사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좋은 일자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경남 사랑의열매와
한국남동발전,
사천시니어클럽에
감사드립니다.”

- 사천家 청춘과자방 참여자

제주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주)네오플의 특별한 나눔

(주)네오플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 '사이퍼즈' 등을 만든 게임 개발사다. 지난 2015년 제주시 노형동으로 본사를 옮긴 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는 중이다.

글 김현정 사진 제주사랑의열매



장애 아동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IT 교육 기자재를 지원한 (주)네오플



1년 동안 제주도 내 결식 우려 아동 100명에게 하루 한 끼 도시락을 제공하는 튼튼새싹 반찬 더하기 프로젝트 성금 전달식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주)네오플은 제주 사랑의열매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돌보고 있다. 지난 6월 '튼튼새싹 반찬 더하기 프로젝트'를 위해 성금 2억 800만 원을 전달했다. 기탁한 성금은 제주도 내 결식 우려 아동 100명에게 1년 동안 하루 한 끼 도시락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7,800만 원과 7,58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며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또 2018년부터 현재까지 3억 원 이상 디딤씨앗통장 본인 부담금을 후원 중이다. 이는 저소득 가정 아동 5,000명 이상이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정부 매칭금을 더해 학자금, 창업, 취업 훈련비, 의료비, 주거비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에는 '던전앤파이터' 유저 행사 티켓 판매 수익금에 자체 기부금을 더해 보육원에 차량 5대를 전달했고, 지난해 겨울에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을 발굴해 아동의 의류비와 외식비 등 월동비를 지원한 바 있다.

누구나 꿈꿀 수 있도록 지원

지난 9월 (주)네오플은 제주 사랑의열매·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서귀포시 장애 아동에게

동등한 IT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0만 원을 후원했다. 해당 성금은 전자 칠판과 노트북, 점자 정보 단말기 등 IT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 지난해에는 언어 학습 시기에 있는 영유아 청각장애 아동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기자재 구입비 일체를 후원했고, 장애인 복지시설 내 곳에 총 1억 원 상당 휠체어 리프트 장착 특수 차량을 기부하는 등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 중이다.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한편, (주)네오플은 저소득 위탁 가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해 17세대의 도배장판, 싱크대, 에어컨 등 노후된 물품 및 주거 환경을 바꿔주었다. 또한 위탁 가정 아동에게 학원비와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외에도 '클린올레(CLEAN OLLE)' 캠페인 후원, 친환경 생분해 봉투 배포 등 아름다운 제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백혈병·소아암 환자 지원, 방과 후 공부방 지원, 범죄 피해자 일상 회복 후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사랑의열매 창립 25주년 기념 전시회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에 초대합니다

사랑의열매가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사)한국아르브뤼 아웃사이드아트협회와 함께 국내 장애인 작가 미술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로 기부자에게 감사와 공감의 의미를 전하고, 문화 예술 복지 증진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색을 더한 특별한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람 일정 2023년 11월 14일(화)~17일(금)

개막식 행사 2023년 11월 10일(금) 오후 3시 30분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별관 1~2층
(1층 나눔공모전 참여작, 2층 장애인 작가 미술 작품 전시)



이정희_공
전라북도 도지정무형문화재 자수장 공수 보유자



김남우_소풍
2023 코리아 빛의 아트 페어 엑스포, 2023 장애인 문화 예술 축제 '바람난 그림전' 등



방두영_자연_생명의노래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고문, (사)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등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C 따뜻해집니다

전국 3243호(부산 338호)



박은실 신영증권 이사
"나눔은 사랑·감동·희망입니다."

전국 3244호(서울 399호)



박복규 (주)한일에셋대부 대표이사

전국 3246호(대구 229호)



양세형 김보라 만촌 천부경영상센터 원장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전국 3248호(서울 400호)



양세형 개그맨
"나눔은 웃음입니다."

전국 3252호(부산 340호)



강희경
"나눔은 '이타자리'(남을 이롭게 하여 나를 이롭게 한다)' 정신입니다."

전국 3253호(대구 23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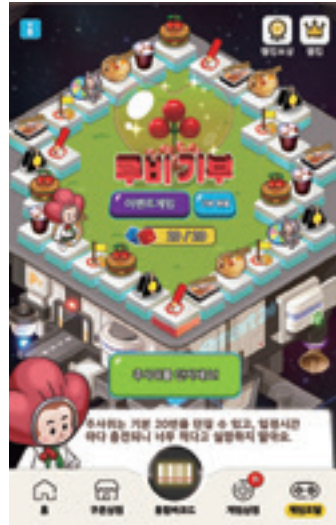


익명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 김영숙 선일금고제작 대표

중앙회

이마트24, 게임으로 기부하는 '루비 100만 개 모금 이벤트' 진행



이마트24가 사랑의열매와 12월 31일까지 게임으로 기부하는 '루비 100만 개 모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마트24는 마스코트 원동이 우주에서 편의점을 경영하는 컨셉으로 '이마트24 우주편의점'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앱 내 미니 게임을 통해 루비를 획득한 뒤 기부하는 방식이다. 메인 화면의 사랑의열매 로고를 클릭하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기부한 루비 개수에 따라 사랑의열매 마스코트 열매둥이를 모티브로 한 '희망원동이'(1,000개 기부 시), '나눔원동이'(100·500개 기부 시) 코스튬을 획득할 수 있다. 루비 1,000개를 기부하면 이마트24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사랑의열매와 협업한 '우주나눔배송' 게임도 준비했다. 우주에서 원동이를 조작해 나눔상자를 목적지까지 제대로 배송하면 루비가 자동으로 기부된다. 스테이지를 15번 달성하면 회사원 코스튬 '열매원동이' 코스튬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24는 유저가 기부한 루비 개수에 비례해 사랑의열매에 성금을 기부할 예정이다.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쉽고 즐겁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발굴할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지난 10월 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재)이 사랑의열매와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직원들에게 사랑의열매 주요 캠페인과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독려하는 등 나눔문화 형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 자리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재 원장과 심성희 부원장, 남규민 경영지원본부장이 나눔리더로 가입했으며,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600만 원도 함께 전달했다. 성금은 폭우 및 태풍 피해 주민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현재 원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추구하는 우리 기관과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랑의열매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성원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2023년 추석명절지원사업 및 아너소사이터티 봉사활동



서울 사랑의열매가 추석을 맞아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를 포함해 총 6개 기관에 7억 원을 지원했다. 더불어 아너소사이터티의 기부금으로 취약 계층 300명에게 김치를 비롯한 송편, 보쌈, 모듬전 등 명절 음식을 담은 한가위 꾸러미를 제작해 전달했다. 한가위 꾸러미 만들기 봉사 활동에는 홍보대사인 현영과 김보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개그맨 양세형, 생일 기념해 400호 아너 가입



인기 개그맨 양세형이 자신의 생일인 8월 18일에 1억 원을 기부하며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터티 400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동안 양세형은 광고료 및 출연료 등을 기부하며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이번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세형은 "이웃을 위한 나눔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

97년생농부, 아동생활시설에 햅쌀 1톤 기탁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쌀을 판매하는 농산물 브랜드 97년생농부(대표 장현)가 부산 사랑의열매에 햅쌀 1톤을 기탁했다. 97년생농부는 2020년부터 매년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부산 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 불황으로 후원처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생활시설 20곳에 햅쌀 50kg씩 전달했다.

긴급 환자 이송 및 처치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 앱 개발



부산 사랑의열매가 뇌혈관 질환자 등 긴급 환자 이송 및 처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앱 개발에 나섰다. 조효진 뷰티 크리에이터가 1억 원을 기부하고, 해운대백병원신경외과 진성철 교수와 동래소방서, 굿네이버스영남지역본부가 참여한다. 이번에 개발할 앱을 통해 119구급대와 병원 간에 실시간 협업이 이뤄져 환자 이송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구

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달성 나눔 네트워크 민·관 협약 체결



대구 사랑의열매가 달성군, 달성복지재단, 달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달성 나눔 네트워크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독사 위험군 등 긴급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마을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안전망 밖의 이웃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 맞아 1만 4,000여 명에게
명절 위문금 및 물품 전달



대구 사랑의열매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 주민과 쪽방 거주민, 노숙인 쉼터 입소자 등 1만 4,000여 명에게 8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대구 시민의 성금으로 마련한 지원금은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추석 관련 물품 등의 형태로 전달했다. 대구 사랑의열매 김수학 회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소중한 사랑을 전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광주

(주)다스코, 인재 육성 장학금
1,950만 원 지원



(주)다스코(회장 한상원)가 광주 사랑의열매에 인재 육성 장학금 1,950만 원을 전달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구열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장학금은 대학생 3명에게 각각 250만 원, 고등학생 1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지원되었다. (주)다스코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9,150만 원의 장학금을 90여 명의 학생에게 후원했다.

NH농협 광주지역본부,
사랑의 1004 운동 성공 기념



NH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신)가 '사랑의 1004 운동'으로 조성한 성금 1,70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광주 지역 농협 임직원의 급여 기부 및 화분 경매 행사를 통해 마련했으며, 저소득 가정 17세대에 100만 원씩 의료비로 지원했다. 고성신 본부장은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인천광역시,
보호 아동 디딤씨앗통장 후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과 디딤씨앗통장 적립 장학금 협약을 체결했다.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보호 아동 100명의 디딤씨앗통장에 매월 3만 원씩 4년 동안 총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인천시는 2배 금액인 6만 원을 매월 적립한다. 이에 따라 보호 아동은 1인당 432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됐다.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1억 원 상당 식품 지원 약속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사장 천시)가 인천 지역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푸드마켓에 1년간 총 1억 원을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첫 번째 후원금은 추석 명절을 맞아 홀몸 어르신, 저소득 가정 등에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하는데 사용되었다. 천시 사장은 "인스파이어는 지역 공동체와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전

한밭새마을금고,
나눔명문기업 골드 회원으로 가입



한밭새마을금고(이사장 천순상)가 대전 18호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2011년부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누적 기부액 7억 8,000만 원을 넘긴 한밭새마을금고는 나눔명문기업 정회원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골드 회원(5억 원 이상 기부)이 됐다. 천순상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체육회,
기부 챌린지 적립금 600만 원 전달



대전광역시체육회(회장 이승찬)가 '2023 걷기 좋은 건강도시 대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기부 챌린지 적립금 600만 원을 대전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대전광역시체육회는 2021년부터 모바일 앱을 활용한 기부 챌린지를 통해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성금은 취약 계층 120 가구에 식료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다.

울산

BNK경남은행, 추석맞이 사랑 나눔 사업 진행



BNK경남은행(은행장 예경탁)이 추석맞이 사랑 나눔 사업을 진행하고, 울산시에 1억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했다. 상품권은 울산시 5개 구·군이 추천한 취약 계층 2,000가구에 지원되었다. 예경탁 은행장은 “물가 급등으로 명절맞이가 부담스러울 이웃을 위해 준비했다”며 “각계 각층에서 희망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한영석, 이상균)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이웃에게 총 5,7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4,25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은 동구 지역 취약 계층 850가구에 지원되었으며, 경로당 32곳과 사회복지시설 31곳에 과일과 떡 등 1,47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경기북부

서울·한양 컨트리클럽, 이웃사랑 성금 2억원 전달



서울·한양 컨트리클럽(이사장 조갑주)이 추석맞이 성금 2억 원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성금은 고양시 저소득 가정과 관내 복지시설 45개소에 전달되었다. 서울·한양 컨트리클럽은 1964년 개장한 고양시 토착 기업으로, 1995년부터 꾸준하게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선일금고제작 김영숙 대표, 아너 가입하며 나눔 동참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선일금고제작 김영숙 대표가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성금은 파주시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18일 개최한 2023 경기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에서 가입식을 진행한 김 대표는 “따뜻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

2023 경기 품성한 추석나눔, 1만 2,000여 명에 15억 원 지원



경기 사랑의열매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 31개 시군의 1만 2,000여 명에게 15억 원 상당의 음식과 생필품, 상품권 등을 지원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2023 경기 품성한 추석 나눔’ 행사를 열고 떡매 치기, 윷놀이 등 민속 놀이 체험과 송편 포장 및 박터뜨리기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아프리카TV BJ Fresh토마토, 오리지널 콘텐츠 수익금 기부



아프리카TV BJ Fresh토마토(본명 유지영)가 오리지널 콘텐츠 수익금 310만 원을 기탁했다. Fresh토마토는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간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며 직접 재배한 토마토를 아프리카TV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판매한 바 있다. Fresh토마토는 “BJ들의 땀과 노고가 담긴 토마토를 기부할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다.

강원

2023년 배분 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 교육 진행



강원 사랑의열매가 지난 10월 16일 2023년 신규 기획 사업 및 복지 현안 우선 지원 사업 배분금 전달식과 수행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2023 신규 기획 사업은 총 3개 주제로 4개 기관이 참여해 2024년 9월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복지 현안 우선 지원 사업은 총 10개 기관이 참여해 올해 말까지 긴급 복지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재)흥천한우사랑말, 나눔명문기업 가입



한우 유통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온 (재)흥천한우사랑말(대표 나종구)이 강원 13호 나눔명문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흥천군청에서 진행한 가입식에는 신영재 흥천군수,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이 참석했다. 나종구 대표는 가입식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충북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북영업센터 임직원,
행복한 한가위 나눔 행사



충북 착한일터에 가입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북영업센터(센터장 전동재) 임직원이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위해 350만 원을 기탁했다. 또한 지난 9월 26일엔 임직원 봉사단 16명이 청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행복한 한가위'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봉사단원들은 무료 급식당의 조리 및 배식 봉사과 명절 선물 포장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유한킴벌리(주)충주공장,
희망뱅크 지원 사업으로 기저귀나눔



유한킴벌리(주)충주공장(공장장 김병헌)이 희망뱅크 지원 사업을 통해 충북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아동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영유아용 기저귀를 기탁했다. 희망뱅크 지원 사업은 유한킴벌리(주)가 12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회 공헌 사업이다. 미개봉 교환품인 기저귀를 재포장해 기부하는 것으로, 아동 보육 시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북

전북은행,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 성금 기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2023 전라북도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을 위한 성금 1억 1,800만 원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전북은행은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여러 사회 공헌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읍 착한가게 8개소 단체 가입,
전북 착한가게 4700호 달성



진안군(군수 전춘성) 진안읍에 위치한 가게 8개소가 착한가게로 동시에 가입해 전북 착한가게가 4700호를 돌파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착한가게 대표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

2023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 개최,
'당신이 나눔의 주인공입니다'



충남 사랑의열매가 지난 10월 17일 '2023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충남 지역에서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나눔실천에 앞장선 70명에게 충남도지사 표창, 충남도지사 감사패, 충남도의회 의장 표창, 충남도교육감 표창, 충남도모금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NH농협 충남세종본부,
나눔명문기업 가입



NH농협 충남세종본부(본부장 이종욱)가 3년간 총 1억 5,000만 원의 기부금을 완납하고 충남 26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NH농협 충남세종본부는 농촌 일손 돕기 및 재해·재난 구호 활동,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등 지역 상생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

전남 착한펫 1호 탄생,
토종 진돗개 자연이의 사랑 나눔



진도군에 사는 '자연이'가 전남 1호 착한펫으로 가입했다.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된 토종 진돗개인 자연이는 온순한 성격으로 사회화가 잘 이루어져 주변 이웃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보호자 K 씨는 "이번 나눔을 통해 그동안 자연이가 받은 사랑을 주변으로 널리 전파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
나눔리더 가입으로 이웃사랑 실천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전남 사랑의열매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의 200호 주인공이 됐다. 10월 13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가입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입식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으로 힘든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입했다"고 전했다.

경북

경산시 착한가게 159개소
단체 가입식 개최



경산시에 위치한 159개 점포가 경북 사랑의열매 착한가게로 단체 가입해 지난 9월 22일 가입식을 진행했다. 경산 나눔봉사단(단장 김세준)은 변화가 장터와 상가 밀집 지역을 순회하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착한가게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착한가게 경산 1호점 가입을 시작으로 현재는 774호점을 돌파했다.

(주)에코프로, 추석 명절 지원금
3,000만 원 전달



포항에서 이차전지 양극 소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에코프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취약 계층에 지원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포항시 흥해읍, 장량동, 대송면의 저소득층 약 150가구에 전달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 문화를 정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주

본태박물관,
소아암 환아 돕기 성금 기부



본태박물관(관장 김선희)이 제주도 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성금 4,0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지난 9월에 진행된 자선 바자회 수익금과 10월에 열린 자선 패션쇼 '본태아카데미 10주년 밀레니엄 모자쇼' 티켓 판매 금액을 더해 마련했다. 본태아카데미 회원들은 2012년 본태박물관 개관 이래 자선 행사를 개최하고, 매년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다.

(사)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3,000만 원 상당 한돈 기탁



(사)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가 지난 10월 6일에 개최한 '2023 제주양돈포럼'에서 3,000만 원 상당의 한돈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번 포럼에는 각 분야 전문가와 양돈 농가, 유관 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청정 제주 양돈의 상생과 공존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우리손나눔회 회원
7명, 나눔리더 단체 가입



경남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성욱) 우리손나눔회 회원 7명이 나눔리더로 단체 가입하며 성금 7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손나눔회는 2020년부터 총 37명의 회원이 나눔리더로 가입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박성욱 회장은 "나눔에 동참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반려견 박까미,
착한펫경남 3호 가입식 진행



박민주 씨의 반려견 '박까미'가 경남 3호 착한펫으로 가입해 지난 10월 17일 가입식을 진행했다. 박민주 씨는 9년 전 집 앞에서 서 있던 강아지의 주인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 못해 입양을 결정하고 까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는 가입식에서 "까미가 우리 집에 행복을 주었듯이 우리도 주위에 행복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

세종시 착한펫단체 가입식 및
홍보업무 협약식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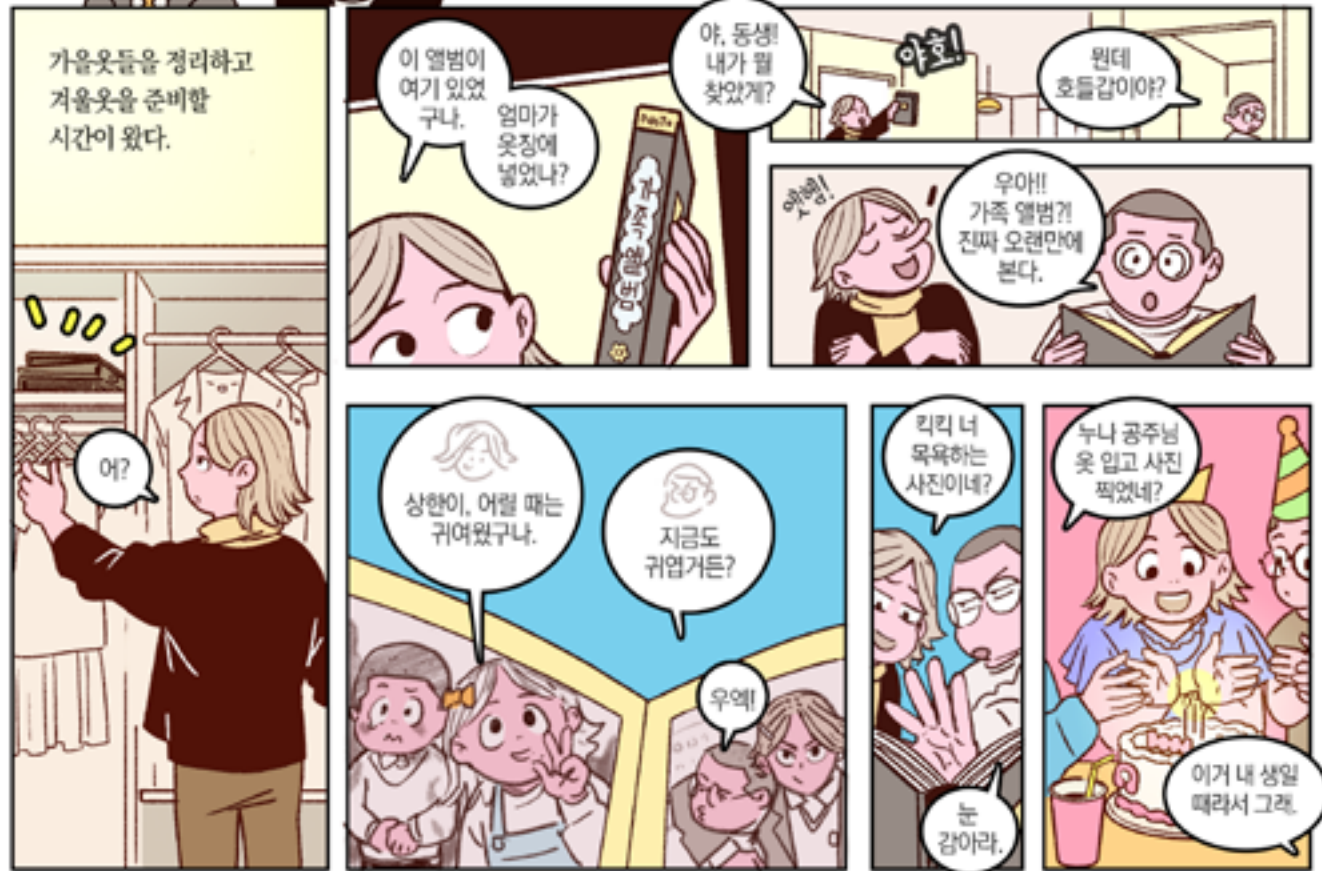
지난 10월 17일 세종 착한펫 1·2·3호의 단체 가입식이 열렸다. 유장현 씨의 반려견 '모모', 안효정 씨의 반려견 '인똥똥', 송성면 씨의 반려견 '벤지'가 주인공이다. 보호자들은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해 뜻깊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세종 사랑의열매는 송성면 씨가 운영하는 (주)딩펫 매거진과 착한펫 나눔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위해
세종시민·관 협력 추진



세종시(시장 최민호)와 한국남부발전(주) 신세종빛드림건설본부(본부장 윤상욱), 한국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본부장 박경우)가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 환경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발전소가 기부한 성금 8,000만 원을 사용해 연탄 및 등유 보일러 사용 가정의 가스보일러 교체, LED 조명 교체, 안전 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한 이상해씨



사랑의열매와 소중한 진심을 전하세요

중앙회	02-6262-3000	서울지회	02-3144-0101
부산지회	051-790-1400	대구지회	053-667-0530
인천지회	032-456-3333	광주지회	062-222-3566
대전지회	042-347-5171	울산지회	052-270-9000
경기지회	031-220-7900	경기북부	031-906-4028
강원지회	033-244-1662	충북지회	043-238-9100
충남지회	041-635-0340	전북지회	063-282-0606
전남지회	061-902-6800	경북지회	054-650-2600
경남지회	055-270-6700	제주지회	064-755-9810
세종지회	044-863-5400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ARS
060-700-1212
(한 통화에 3,000원)



문자
#9004
(한 통화에 2,000원)



QR 기부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4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